



김태진

5번 타자 김태진 '5월 반격' 이끈다

최근 타격감 좋아 KIA 공격의 핵심으로



KIA 타이거즈가 5번에서 공격의 답을 찾는다.

KIA는 올 시즌 들쭉날쭉한 타선 때문에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리드오프 최원준이 5월 4할 타율을 과시하면서 부지런히 걸어나가고 있지만

힘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지난 시즌 구단 최초로 30홈런 100타점 100득점을 작성했던 터커가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최형우와 나지완이 부상으로 동반 이탈하면서 지난 시즌의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최형우와 나지완의 부상 복귀 시점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SSG와의 경기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윌리엄스 감독은 "최형우의 부상 상황은 비슷하다. 치료 중이다. 나지완도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부상 선수들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안과 질환으로 레이저 치료 후 14일 검사를 받은 최형우는 20일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 나지완을 준비했던 나지완도 옆구리 근육 부상이 악화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경험과 힘을 갖춘 두 타자의 이탈로 중심 타선에서 신예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윌리엄스 감독은 화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합을 고민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15일 창원 NC전에서 5월 가장 타격감이 좋은 최원준과 김태진을 테이블 세터로 나란히 세웠다.

18일 SSG전에서는 김선빈을 다시 2번으로 배치하고 김태진을 5번으로 이동시켰다.

김태진 2번 작전은 과정으로는 성공이었다.

이날 최원준과 김태진이 나란히 3안타를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어줬다.

하지만 결과로 보면 실패였다. 후속타 불발로 6차례 출루한 테이블 세터는 2득점에 만족해야 했고, 팀은 3-7 역전패를 당했다.

"김선빈이 가장 평한 타순이 2번인 것 같다"고 언급한 윌리엄스 감독은 5번 김태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횟수가 많은 타순은 5번이다. 그래서 5번을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진은 다양한 곳으로 공을 보낼 수 있고 상대 투수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타자다. 지금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뜨거운 5월을 보내고 있는 최원준과 김태진을 각각 공격을 여는 1번, 기회가 많은 5번에 넣으면서 화력에 불을 붙이려는 KIA. 터커와 이정훈의 활약도 중요하다.

지난해 기세는 아니라고 해도 상대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수는 아무래도 '한방'이 있는 터커다. 이정훈은 수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타격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KIA가 새로운 5번을 중심으로 부족한 화력을 채우고 반격의 5월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루키' 이의리 다음 상대 SSG 아닌 삼성

KIA, 백신 접종 맞춰 21일 선발 등판

'특급 루키' 이의리의 다음 상대는 SSG가 아니라 삼성이 된다. KIA 타이거즈 이의리의 선발 등판 날짜가 21일로 미뤄졌다. 이의리는 18일 SSG와의 홈경기에 출격할 예정이었지만 비로 두 차례 등판을 미룬 맹텐이 이날 마운드에 투입됐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까지 고려해 이의리의 선발 등판 일정이 다시 조정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18일 "맹텐이 일요일(23일) 경기까지 들어갈 예정이다. 선발 로테이션에 약간 변화가 있다"며 "이의리가 백신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데 그날이 28일이다. 그래서 21일 선발로 나오고 다시 27일 등판까지 소화한 뒤 접종을 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의리를 거르고 원래 준비했던 순서대로 SSG전 선발이 가능하다.

19일 경기에서는 브룩스가 선발로 나서고, 20일 임기영이 마운드에 오른다.

한편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 선수들의 코로나19 2차 접종으로 25일 경기가 취소된다.

지난 3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차 접종을 받았던 선수들이 24일 2차 접종에 나선다.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각 구단의 행방성을 위해 앞선 1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25일 경기가 순연된다.

이번에도 특별엔트리가 한시 운영된다.

백신 접종 선수가 관련 증상으로 엔트리에서 탈퇴하면 이를 대신해 '특별엔트리'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또 관련 증상으로 접종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말소되는 접종 선수의 경우 만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등록이 가능하다. 최대 3일까지 등록일수도 인정해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안방서 제주 상대 연패탈출 나서

배수의 진을 친 광주FC가 안방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연패 탈출에 나선다.

광주는 19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제주를 상대로 K리그1 2021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승리했다.

광주는 최근 4연패 부진에 빠지면서 최하위(12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강등권 후보로 언급되는 수원FC, 인천유나이티드와 원정 2연전에서 모두 패배를 거두고 돌아왔다.

사실상 승점 6점이 걸린 경기, 선제골을 넣고도 '극장골'에 내준 2패라 더 충격은 컸다.

물러설 곳이 없는 광주는 안방에서 승리를 위한 배수의 진을 쳤다. 지금은 무승부도 무의미한 위기 상황이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다.

최하위에 있지만 7위 인천이 승점 5점 차에 있다. 또 이번 경기는 5월 첫 홈경기다.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연패 탈출을 노릴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앞선 인천전 패배에도 소득은 있었다.

3월 20일 제주 원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던 엄원상이 복귀 두 경기 만에 복귀골을 넣었다. 감각적인 왼발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엄원상은 광주 공격에 청신호를 켰다.

득점뿐만 아니라 빠른 발을 이용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선보이면서 견제함을 보여줬다.

시즌 초반 좋은 활약을 해줬다 '풍암동 지단' 김중우도 부상을 털고 후반전 교체 투입되며 다시 시동을 걸었다. 김중우의 가세로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와 함께 더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등 광주의 전력 구상 폭이 넓어졌다.

광주는 제주와의 상대전적에서 5승 4무 5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주도 최근 3연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하지만 이창민, 류승우, 안현범, 주민규 등 리그 수준급 선수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조직력과 함께 강력한 질적 수비로 6위를 지키고 있다.

광주가 안방에서 제주를 꺾고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케인 "토틀넘 떠나겠다"

구단에 결심 전달 ... 맨유·맨시티 등 관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틀넘을 떠나겠다는 해리 케인(28)의 결심이 더욱 굳어지는 분위기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18일(한국시간) "케인이 올 여름에 토틀넘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구단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토틀넘 유스팀을 거쳐 2011년 프로 데뷔 후 네 차례의 임대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토틀넘에서 뛰어난 케인은 팀이 이번 시즌에 실패해 '무관'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토틀넘은 이번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16강에서 일찌감치 탈락했고, 지난해 리그결승에서도 맨시티에 0-1로 져 준우승을 차지했다.

EPL에서는 현재 6위(승점 59)에 자리해 사실상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어려워졌다.

케인은 자신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22골 13도움을 올리며 득점과 도움, 공격포인트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저조한 성적을 내 실망이 크다.

토틀넘은 케인의 잔류를 원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 다른 EPL 팀들이 케인에게 관심을 보인다.

스카이스포츠는 "케인 역시 EPL에서 뛰고 싶어하며 다음 달에 열리는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 나서기 전에 거취를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케인은 지난해 여름에도 팀을 떠나려 했고, 당시 구단의 설득에 잔류를 선택했다. 이번에도 토틀넘이 케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텍사스 양현종, 20일 양키스전 중간계투 등판 긴 이닝 던질 듯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이 다음 등판에서도 중간에 등판해 긴 이닝을 던지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크리스 우드워드(45) 텍사스 감독은 18일(한국시간) 화상 인터뷰에서 양현종의 역할을 '벌크 게이(Bulk guy)'라고 표현했다. 선발 투수는 아니지만, 경기 초반에 등판해 '선발처럼 긴 이닝을 던지는 투수'라는 의미다.

텍사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뉴욕 양키스와 4연전을 벌인다.

텍사스는 아직 20일 경기 선발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존 선발 아리하라 고헤이가 부상자 명단(IL)에 있고, 15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전에 선발 등판한 웨스 벤저민이 마이너리그 트리플A로 내려가 20일 경기는 대체 선발을 쓰거나, 투수를 대거 기용해야 한다.

선발로 한 차례 등판하고, 중간 계투로 등판한 3경기에서 긴 이닝을 소화한 양현종도 '20일 양키스전 선발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종이 (20일 양키스전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할 것이다. 벌크 게이 역할을 한다"며 "선발 투수는 아니다. 20일 양키스전 선발은 오른손 투수가 나설 예정이다. 우타자가 많은 양키스 타선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양현종은 안정된 한국 생활을 뒤로 하고, 스프링 계약을 하며 미국 무대에 도전했다.

개막 로스터에는 제외됐지만 4월 27일 현역 로스터에 등록하면서 꿈에 그리던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양현종은 4경기에 등판해 16이닝 동안 13피안타(3홈런), 6실점 하며 3.38의 준수한 평균자책점을 올렸다. 아직 승패는 기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